

작품 내용

제 목	내 사진이 어딘가에 있었다
내 용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그날은 별다른 것 없는 월요일 오후였다. 나는 습관처럼 포털 이미지 검색창에 내가 운영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명을 입력했다. 경쟁사들이 어떤 이미지를 쓰는지 살펴보려는 단순한 의도였다. 그런데 화면을 내리던 손가락이 멈췄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거기 있었다. 배경지를 깔고, 조명 각도를 수십 번 바꾸고, 렌즈 먼지를 닦고 또 닦아가며 완성한 그 사진이, 내 워터마크도 없이, 출처 표기도 없이, 다른 쇼핑몰 상품 페이지에 올라가 있었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확대하고, 다시 내 원본 파일과 비교했다. 같은 각도, 같은 그림자, 같은 배경.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의 사진을 가져다 쓴 것이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묘한 감각이 올라왔다. 화라고 해야 할지, 허탈함이라고 해야 할지 정확히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사진 한 장을 완성하기 위해 들인 시간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되었다. 제품을 씻고 말리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계산하고, 초점을 맞추고 흐리고를 반복하며 만나절을 보냈다. 그 모든 과정이 내 것이었는데, 결과물만은 이미 남의 것이 되어 버린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저작권이 법 조문 속의 단어가 아니라 내 삶과 붙어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이해했다. 저작권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나올 때는 대형 기획사나 유명 작가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작은 쇼핑몰을 혼자 운영하며 제품 사진을 찍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당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저작권은 화려한 스튜디오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창의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 그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생긴다. 내가 조명 각도를 고민하고 배경색을 선택한 것도 창의적인 판단이었고, 그 판단이 담긴 사진에도 나의 권리가 붙어 있었다. 해당 사이트에 사진 삭제를 요청하는 메일을 쓰면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창작자라고 인식했다. 대단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만 창작자인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고, 선택하고, 결정한 모든 사람이 창작자였다. 그리고 그 창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과 감각을 무단으로 소비하는 것이었다. 메일을 발송하고 나서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의 빛이 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나는 그 빛을 보며, 다음 번 사진을 찍을 때는 워터마크를 더 선명하게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무력감이 아니라 다짐처럼 느껴졌다. 내 창작물을 지키는 것도,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검색창이 돌려준 고백」 사람들은 흔히 인터넷을 광장에 비유하지만, 나에게 그날의 인터넷은 거울이었다. 내가 찍은 사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마치 내 얼굴을 모르는 사람의 액자에서 찾아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형용하기 어려운 불쾌함과, 그보다 더 어색한 슬픔이 같이 밀려들었다.

그것은 여행지에서 찍은 풍경 사진이었다. 해가 지는 시각의 항구, 오래된 어선들이 물결에 흔들리는 장면을 담은 것이었다. 그 사진을 찍기 위해 나는 그날 일몰 시각보다 한 시간 일찍 항구에 도착했다. 빛의 색이 바뀌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구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고, 카메라를 든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숨을 참으며 셔터를 눌렀다. 그 한 장을 위해 수십 장을 삭제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보정에만 두 시간이 걸렸다.

그 사진이 한 여행사의 블로그 홍보 게시물에 올라가 있었다. 출처는 없었고, 사진 하단에는 그 여행사의 로고가 들어가 있었다. 누군가 내 사진을 가져다 자신들의 상업적 홍보에 활용한 것이었다. 나는 한참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을 했다. 내가 이 사진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EXIF 정보가 있었다. 촬영 날짜, 카메라 기종, 위치 데이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는 나도 몰랐던 사실들을 배웠다. 사진을 찍는 순간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한다. 등록을 별도로 해야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 사실이 조금 위안이 되었고, 동시에 왜 이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지 허탈했다. 사진 한 장이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가진 창작물이라는 사실을, 나는 피해자가 된 뒤에야 이해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진을 올릴 때 꼭 촬영자 정보를 기재하고, 고해상도 원본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내 사진을 쓰고 싶다면 먼저 묻기를 바란다. 그 한 마디가 창작자에게는 크게 다른 무게를 가진다. 허락을 구하는 것은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그 사진을 찍기 위해 누군가가 쓴 시간을 인정하는 행위다. 그 인정 하나가 창작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나는 저물어 가는 항구의 그 빛 속에서 배웠다.